

News

파월 “2주 뒤 기준금리 0.25%p 인상할 것…우크라 사태는 게임체인저”

헤럴드경제

파월 의장,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 웃돌고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이날 회의에서 연방 금리 목표 범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 언급
0.25%p 금리 인상 지지 공식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0.0~0.25%... 이날 대차대조표 축소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도 병행할 것 암시

5대 은행 가계대출, 1조7500억원 ↓ …두달 연속 감소

중앙일보

5대 시중은행, 전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 총 705조 9,373억원 집계… 지난 1월보다 1조 7,522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
주담대 잔액은 전월비 1,657억원 감소한 506조 6,524억원으로 5년만에 처음 감소…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 8,575억원으로 올 1월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

“대출도 은행점포 안 가요” …비대면 금융, 70조원 돌파

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발표 '2021년 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는 1억 9,086만명으로 전년말대비 9.4% 증가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 각각 82.9%, 18.2% 수준으로 증가세 지속…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 고객 급증 때문

청년적금서 빠진 인뱅·저축銀 “수신금리 올리자”

서울경제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 올리며 수신 잔액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 지정학 리스크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며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자금 확보 목적
지난 2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적금금리 인상 및 특단 예금 내놓은 것은 이례적… 시중은행의 청년희망적금 시행으로 더 가속화된 점도 존재

보험사 주담대 금리도 6% 눈앞… 그래도 찾는 사람 많은 이유

머니투데이

6개 보험사, 지난달 말 변동금리형 분할상환방식 아파트담보대출 운영금리 3.71~5.55%... 1월대비 상·하단 모두 올라... 상단 5%대인 보험사는 1월 1곳에서 2월 4곳으로 증가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로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를 전망... 연내 주담대 상단 7% 돌파 가능성도 제기

어피티티컨소, 2차 ICC 중재 신청… 교보생명 “IPO 방해 마라”

조선비즈

어피티티컨소시업, 교보생명 대상 다시 ICC에 중재 신청... 1차 중재 기각된 지 약 5개월 만... 신청재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 지연을 통해 입은 손해 관련도 배상 청구 계획
교보생명, 이번 2차 중재 신청에 즉각 반박... IPO를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하다는 설명...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는 행위라 주장

증권사, 美 상장된 러시아 종목 거래 제한 시작

뉴스1

한국투자증권, 공지를 통해 미국자산관리통제국의 제재조치로 미국에 상장된 러시아 종목들의 거래 제한되었음을 발표
현재 거래 제한된 종목은 치안, 메첼, MTS, 안텍스, 오존 홀딩스, 넥스터스, 키위... 모든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

지난해 국내기관 외국주식 투자 역대 최대…주요국 주가 상승 영향

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외화증권 투자 잔액, 시가 기준으로 4,027억 2,000만 달러... 전년대비 299억 7,000만 달러 증가
자산운용사가 337억 1,0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증가세... 주요국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및 신규 투자확대 등으로 외국 주식 증가세 기록한 영향 등 반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